

【서 평】

‘만주’의 재발견을 통한 만주학의 새로운 지향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이정빈*

■ 차 례 ■

1. 서 언
2. 구성과 문제의식
3. 성과와 지향
4. 제 언

1. 서 언

최근 동아시아 역사서술의 단위와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민족사와 탈민족사 혹은 국가사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논의의 층위가 복잡하고 논점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접점은 ‘만주’로 모아진다. 실제 만주는 다양한 역사성을 갖고 있었거니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만주를 설명하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근대 학문의 방법으로 만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초, 러·일전쟁 이후였다. 일제의 남만주 '경영'과 짝하여 일본의 동양사학은 이른바 '滿鮮'을 주목하였던 것이다.¹⁾ 시라토리 구라치키(白鳥庫吉)를 중심으로 한 '만철 조사실'의 『滿鮮歷史地理報告』(16책, 1915~1941)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²⁾ 특히 만주사변(1931)과 만주국의 건국(1932)은 일제의 만주 연구를 더욱 촉진하였다.³⁾ '만주학'은 제국의 학문으로서 성립하였던 것이다. 만철 조사실만 아니라 일제시기의 만주 연구가 대체로 그러하였다.⁴⁾ 이에 따라서 만주 연구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저 일제를 떠올렸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였다. 가령 '만선사관'이나 '만주국사'가 '악몽'처럼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만주를 주제로 한 연구는 억제된 형편이었다.

그런데 최근 만주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진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국은 실재하였지만, 망각하고 있었던 공간, 만주를 다시 기억해 내고 있다. '블랙박스의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독의 방식은 여럿이다. 그 결과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학계의 해독문이 제시되었다.

2. 책의 구성과 특징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과 18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와 필진은

-
- 1)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想」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 2)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대해서는 고마야시 히데오·임성모 역, 2004,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럼 그리고 滿鮮歷史地理調査室에 대해서는 櫻沢亞伊, 2007, 「滿鮮史觀」의 再檢討-「滿鮮歷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39 新潟大學大學院現代社會文化研究科이 참고된다.
 - 3) 三島一, 1935, 「滿洲史研究序說」 『歷史學研究』(滿洲史研究特輯號)5-2 1~2쪽.
 - 4) 外山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洲史研究」 『歷史教育』15-9:10.

다음과 같다.

서문

제1부 북방민족의 요람

- 거란과 여진 / 윤영인
- 청조清朝의 성립 / 김두현
- 청 입관 전 만주의 도성 / 유지원
- 고려의 요동 인식 / 이정신

제2부 만주를 둘러싼 소용돌이

- 만주에서의 러시아 / 최덕규
- 장학량정권과 국민혁명 / 송한용
- 만주시장의 출현과 조선인 자본의 대응 / 정안기
-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후 만주의 유산 / 강진아

제3부 만주의 조선인

-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 박영석
-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김기훈
- 신경(新京)의 조선인
- 한설야의 『대륙』 과 만주 인식 / 김재용
- 만주국민의 창출과 재만 조선인문제 / 다나카 류이치

제4부 만주의 현대적 의미

-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 윤휘탁
- 간도 문제의 시대적 변화상, 17~21세기 / 박선영
- 분단과 만주의 기억 / 신주백
- 만주국과 오키나와의 비교사적 고찰 / 임성모
- 중국조선족의 현황 / 장세윤

이상을 통해 볼 수 있듯, 여러 주제들은 만주의 역사,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대중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글로 풀어쓴 것이지만, 각 주제들은 이미 학계에서 검증된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전문 서적인 것이다.⁵⁾ 특히 그 필진은 우리 학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학자들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주제와 필진만 보더라도 이 책은 우리 학계 만주 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평자는 이 책을 ‘만주’라는 블랙박스에 대한 우리 학계의 해독 문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평자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을 서문에서 찾고 싶다. 서문을 통해 우리시대 ‘만주학’의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기 때문이다.⁶⁾ 서문에서는 전근대부터 만주가 동아시아 변동의 핵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다양성이 공존하였고, 융합이 시험되었던 공간이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만주에서는 민족 경계를 넘은 담론이 제시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계에서 만주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획 아래 변방이 되었고, 의도적으로 억제되어 왔다고 한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중국의 민족주의 갈등 속에 놓여 다시금 만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서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 “21세기 개방의 시대”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만주의 발전을 제시하는 묵시적 희망”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즉 서문은 지금 우리가 왜 만주를 연구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를 밝혀둔 것이다. 또한 서문에서는 그것이 최근의 연구 성과, 특히 이 책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해 두었다. 이로써 얼핏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책 안의 개별 주제가 더욱 빛

5) 대중교양서로는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그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을 들 수 있다.

6) 만주학의 의의는 곧 우리 학회의 창립 취지이기도 하다(우리 학회의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 서문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고 생각한다.

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각 장을 중심으로 이 책의 성과와 그에 반영된 문제의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⁷⁾

3. 성과와 지향

흔히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든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하는 평자의 입장에서 만주학은 만주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시간과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 (특히 일제시기)의 만주학은 대체로 공간을 중시하였다. 만주학이라고 하면, 주로 지리 방면의 연구였던 것이다. 지명의 고증, 전쟁 당시의 행군로, 교통로, 여러 종족의 강역 등과 같은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만주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인간은 배제되었다. 만주는 지배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보면, 3부가 “만주의 조선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니와, 적지 않은 수의 다른 주제들도 인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가령 제 4부 “만주의 현대적 의미”에서는 만주를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대면시켰다. 장의 제목대로 여기서는 지금의 우리시대에서 만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폈는데, 이를 통해 만주의 역사와 문화가 “과거 시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깊은 미래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지난 시기의

7) 뿐만 아니라 서문에서는 각 주제의 내용과 연구사적 의미 또한 친절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런데 이점은 오히려 평자에게는 부담이기도 하다. 애초 평자로서는 각 주제를 소개하고 비평할 능력이 없었거니와, 서문의 소개와 평가보다 더 잘 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개별 주제를 세밀히 검토하기보다는 각 장으로 논의의 대상을 넓혀보기로 한다.

만주학에서 배제되었던 인간을 중시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자는 이 책의 성과를 우선 ‘인간의 얼굴을 한 만주학’을 제시하였다는 데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동아시아에서 만주만큼 다양한 인간 집단이 공존하였던 지역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만주를 바라보면서 상이한 해석을 내리는 현상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만주 역사의 여러 모습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주에 대한 기억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만주를 두고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⁸⁾ 하지만 이와 같은 현대 국가의 ‘일국사’ 서술과 역사해석으로는 만주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를 내세워서는 동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제시한 ‘융합’이 주목된다. 이 책은 제목부터 ‘융합’을 들었다. 특히 제 1부 “북방 민족의 요람”은 ‘다양성’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로써 ‘一以貫之’하였다. 이 장은 전근대 만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주제들은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만주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상기시키고, 그 다양성이 ‘융합’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점은 최근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양성’의 탐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면, 어느 특정한 인간 집단만이 이 부각되긴 힘들다. 여러 인간 집단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

8) 가령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둘러싼 역사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시·박경희 역,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1과 송기호,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2007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렇다면 기존의 서로 대립적인 주장들도 ‘다양성’ 안에서 ‘융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 주장은 차이를 없애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최근의 ‘역사분쟁’처럼 서로가 ‘독백’으로 일관하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즉 ‘다양성’과 ‘융합’은 지금까지의 대립적 논의를 해소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소재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이점에서 제 2부 “만주를 둘러싼 소용돌이”가 주목된다. 이 장은 근·현대 만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껏 근·현대의 만주를 바라보는 데에는 ‘침략과 저항’과 같은 이분법적 인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근·현대 만주사는 일제의 침략과 그의 극복과정으로 요약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만주를 둘러싼 소용돌이”는 이점은 흐릿하게만 내비친다. 오히려 이로부터 벗어난 소재를 주목하였다. 근·현대 만주의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20세기 만주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 책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만주’의 여러 문제를 통해 연구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폐쇄적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의 주체를 발굴·복원해 냄으로써 융합을 통한 만주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앞의 성과는 이미 지난 시기의 인식 틀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준과 지향은 비단 우리 학계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학계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의 만주 연구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하여 왕성한 편은 아니다. 일제시기의 만주 연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양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제의식을 폭 넓게 공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움을 덧붙이고자 한다.

4. 제 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첫 번째의 아쉬움은 왜 이 책의 시작이 ‘거란과 여진’인지 이해하기 힘든 데 있었다. 물론 만주를 “현대사의 블랙박스”라고 규정할 경우, 주 먼 고대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다. 근·현대사 형성의 중요한 와 맞닿은 시점의 설정이 긴요할 것이다.⁹⁾ 그렇지만 이 책이 근·현대만 다룬 것은 아니다. 대체로 10세기 후반의 ‘거란’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만주의 전근대사를 “북방민족의 요람”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렇다면 그에 적합한 설명이 더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거란과 여진’이 만주를 주도하였던 앞 시기는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발해 등이 만주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흔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된다. 만주와 한국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보다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만주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라도, 만주 연구의 시간적 범주를 조금 더 확장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만주학의 정의가 있었다라면 하는 것이다. 가령 역사학 분야에서 ‘만주사’라고 하였을 때,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가 궁금한 것이다. 만주사란 용어는 주로 일제시기부터 사용되었는데, 특히 만주국의 건국 이후 강조되었다. 이때의 만주사는 ‘만주국의 역사’

⁹⁾ 예를 들어 이 책의 서문에서는 만주학의 의미를 설명하며, 특히 ‘만주국’을 강조하고 있다. 만주국의 존재로부터 만주를 연구할 필요성을 찾고 있다.

를 의미하였다.¹⁰⁾ 현실에 존재하는 만주국의 역사를 세우려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만주와 중국을 분리시키고, 한편으로는 만주와 ‘조선사’를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만주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식민사관을 떠올리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만주사, 만주학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아쉬움은 새로운 연구시각으로 주목되는 ‘다양성’과 ‘융합’의 의미가 더욱 철저했으면 하는 것이다. 자칫 ‘다양성’과 ‘융합’의 지나친 강조는 만주의 ‘개성’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강조되었던 ‘다양성’의 의미와 ‘융합’의 방향은 달랐을 것이다. 물론 이점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사항이겠지만, 큼지막한 방향의 설정이라도 있었다면, 이해가 더욱 편리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상의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이다. 이 책을 통해 만주학의 기반이 단단해졌고, 또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상의 아쉬움이 여러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다지는 데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그리하여 ‘만주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의 재조명’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가령 矢野仁一,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1933이 대표적이다.